



# 흔들리기 시작한 정몽구를 더 몰아붙이자

##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철탑 농성으로 다시 떠오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광범한 지지와 연대 속에 승리를 향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사측은 “신규채용안” 강행 꾀수를 여러 번 천명했지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가 불법파견 인정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10년 동안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 비판에 모르쇠와 무시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고공 농성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연대했던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압박이 형성되면서 지배자들의 분열도 생겨났다. 노동부장관이 현대차를 비판할 정도다. 게다가 최근 노동자 투쟁이 부상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투쟁에 대한 광범한 정치적 지지, 차별을 뚫고 성공적인 1차 파업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나긴 투쟁으로 복직을 따낸 한진중공업 해고자들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경제민주화 목소리와 최근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사건 등도 영향을 줬다”고 실트했다.

물론, 정몽구 일당은 한 발 물러서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불법파견 범위를 축소해 후퇴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사측은 이미 “노사 모두 동의하는 불법파견 공정을 추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몽구 일당은 어디까지가 불법파견이냐 공방을 벌이며 소나기를 피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작업장에서 불법파견의 여지를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를 기간질하려는 속셈도 내비치고 있다.

“불법파견 공정 추출”은 노동자들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

일부 공정만이 불법파견 인정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나머지 공정에선 비정규직 고용이 용인되는 셈이다. 분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정몽구를 흔들고 한국 사회의 시계추를 왼쪽으로 옮기고 있다.

열을 피하기 위해서도 올해 4월 정규직지와 비정규직지회가 합의한 원하청 공동 요구안의 핵심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투쟁해야, 현대차 1만 3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현대차 노사전문위원을 지낸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박태주는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꿈쩍 않던 정몽구 일당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그 바탕이었다. 그리고 더 큰 전진을 이뤄내려면 노동자 연대와 단결로 힘을 강화해야 한다.

박태주 등이 주장하는 ‘일부 공정 정규직화’ 방안은 결코 노동자들의 단결에 도움이 안 된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의 핵심 취지도 현대차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사내하청이 정규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뽑아낸 이익의 일부만 투자해도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왜 이것이 비현실적인가.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의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깔고 있고,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갈날을 겨누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 철탑의 불씨를 작업장 투쟁으로

정몽구 일당이 흔들리기 시작한 기회를 이용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철탑이 지퍼 놓은 정치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밝혔듯이 불씨를 작업장 투쟁으로 연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우선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의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적극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이 자동차 조립 라인의 중요한 공정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들이 일손을 놓고 대체인력까지 저지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1공장 사업부위원회는 “실질적 원하청 연대”를 위해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사측 관리자, 반대조, 일당직 저지를 포함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대체인력 저지 지침”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정규직 활동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저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8월 14일에 울산 1공장에서 대체인력 저지 투쟁이 라인을 멈춰 세우며 성과를 냈던 것처럼,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이 공장 안에서 대열을 갖춰

▶ 뒷면으로 계속

한진중공업 92명 복직

#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2명이 1년 9개월 만에 복직했다. 이는 지난해 희망버스 운동이 거둔 기세 벅찬 성과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계에서 정리해고가 철회된 것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물론 한진중공업 사측은 수주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한 92명을 유급휴직 상태로 놓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측의 반격을 대비하며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연대를 지속해야 할 과제를 안고 복직했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공동대표**가 복직의 의미와 소감, 향후 투쟁에 대해 말한다.

“며칠 전 노동자대회 때 한진중공업 노조가 무대에 올라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인사했는데, 여전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복직은 투쟁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이 명박 정부 들어서 이기는 싸움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의 복직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고 투쟁 현장에 있던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버스 때 어떤 교수가 정리해고는 필연적이라고 했는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기업이 운영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돈벌이를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정리해고법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법문을 그냥 좀 고치자는 의견인데, 결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입니다.

2011년 희망버스 때 우리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같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정말 살인 해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단식이 거의 40일이 다 돼 가는데, 연대 투쟁의 힘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투쟁이 있어야 무슨 일이 터져도 노동자들을 집결시키고 조직할 수 있거든요. 회사 압력으로 사측 노조로 넘어간 조합원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고통전기에 반대한 유럽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있다.

## 23개국 노동자의 파업·시위가 유럽을 뒤흔들다!

11월 14일 사상 초유의 유럽 공동총파업과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유럽 23개 나라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조직됐다.

유럽 반긴축 투쟁의 선두에 있던 그리스 노동자들은 7~8일에 벌어진 48시간 총파업 시위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국기를 나란히 들고 행진했다. 이에 화답해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그리스 국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스페인에선 전체 노동자의 80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했다. 사람들은 “총파업으로 영업 안함. 다른 미래는 없다”는 스티커를 거리와 상점에 부착하며 다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힘든 맥도널드 노동자들도 작업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탈리아 노동자들도 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시위대는 중앙역 철로에 드러누

웠고, 지하철도 멈춰 세웠다. 학생들은 경찰서를 습격하고 지방청사를 점거하며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유럽 노동자들이 이처럼 국경을 뛰어넘어 총파업을 벌인 것은 모든 유럽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남유럽 노동자들을 “돼지들”이라고 부르며 나머지 유럽과 이간질 해왔지만, 파업은 이런 논리를 산산조각냈다.

“남유럽 동지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진짜 싸움이 필요합니다.” 전국 파업을 벌인 벨기에 철도노조 조합원의 말이다.

영국 공무원노조는 3시간 파업을 벌이며 공동총파업에 힘을 보탤고, 터키와 리투아니아에서도 연대 파업이 이어졌다. 프랑스 노총들도 시위를 벌였다.

이번 공동총파업은 유럽 노동자 투쟁이

크게 전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이미 하루 파업을 넘어서 무기한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요 작업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급진화에 역행하며 긴축을 추진한 주류 사민주의 정당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좌파 개혁주의 정당들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한편에선 뾰족한 정치적 대안이 없다고 느끼는 대중 사이로 파시즘과 인종주의도 침투하고 있다.

유럽의 좌파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면서,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 개입하며 진정한 대안도 발전시키고 있다. 지금은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무엇보다 유럽 공동총파업은 전 세계와 이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도, 경제 위기 고통전기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엄청난 투지와 자신감을 선물하고 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

## “싸우는 자들이 희망이다”

일시 : 11월 24일(토) 2시 금속노조 결의대회 / 3시 함께 살자 결의대회 / 4시 싸우는 자들이 희망이다  
장소 : 서울광장

### ▶ 앞면에서 계속

함께 라인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단결을 선동하고 관리자에게 맞설 필요도 있다.

물론, 사측이 “불법” 운운하며 대체인력 저지를 공격하려 하겠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이런 공격은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연대 투쟁도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오늘 연대 집회를 개최한 것은 연대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특히,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원을 위한 전 조합원 1천 원 납부 결의, 쌍용차 투쟁 등과 연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투적 활동가들이 더 강력한 파업을 촉구하는 현장 발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돼야 하고, 활동가들은 작업장에서 이를 실현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탑의 외침과 호소에 희망이 맺히기 시작했다. 철탑의 고압 전류를 투쟁과 파업의 강력한 전류로 연결시키자. 우리의 꿈은 정몽구의 악몽이고, 정몽구의 악몽이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꿈을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자.

